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월 15일

**허리케인 SANDY 구제 법안에 대해 임박한 하원 표결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

"뉴욕주가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해를 겪은지 78일이 지났습니다. Sandy는 약 19,000채의 주택 및 아파트를 파괴하거나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영향을 받은 42,000여 업소들이 아직도 재정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15,000여 명의 뉴요커들은 자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 하루 지체될 수록 그들은 돌아가게 될지를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따라서 워싱턴 DC가 행동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뉴요커들은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재난을 통해 고통을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하원은 이번 재난에 어떤 주도 이때까지 보지 못한 가장 실망스러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수준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Katrina의 피해자들은 절실히 필요한 원조 약 520억 달러를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받았습니다. 허리케인 Gustav가 지나간 뒤 영향을 받은 지역의 주민들이 200억 달러의 구제를 받는 데는 17일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주들과 그 주민들은 그들이 받을 만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당연히 뉴욕주 주민들도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원이 보았을 때 한 약속을 지킬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면 하원은 이 법안을 오늘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